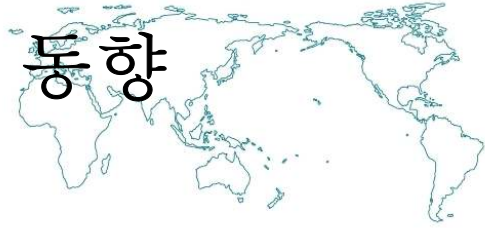
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

2013. 12

2nd Week

목차

1. ANSI, 텔레콤 및 ICT 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
2. TTA, 스펙트럼 공유에 대한 백서: 정책 입안자를 위한 구체적 권고 발표
3. 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, 표준 기반 통신 및 상호운용성 원한다

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해외표준화기구동향

1

ANSI, 텔레콤 및 ICT 산업 라운드테이블 개최

- 보도날짜 : 2013. 12. 09
- 출처 : ANSI
- 사이트 : http://www.ansi.org/news_publications/news_story.aspx?menuid=7&articleid



- ANSI는 지난 12월 5일, ITU 전기통신표준화국(TSB) 말콤 존슨 국장을 사회로 통신, ICT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
- 3시간의 회의에서 해결된 주요 문제는 다음을 포함함:
 - 통신, ICT 및 관련 산업을 포괄하는 ITU-T 표준 프로그램의 진화
 - ITU-T 및 기타 표준개발기구(SDOs) 간 관계
 -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세계무역기구(WTO)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의 원칙
 - 통신, ICT 및 관련 표준화에 대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의 관심
 - ITU-T의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의 현 상태 및 향후 계획
- ITU-TSB는 ISO 기술관리이사회 및 IEC 표준화관리위원회 와 함께 일반주제, 협력, 작업 중복에 대한 대화에 집중함
- 말콤 국장은 SDO가 공통 및 보완 국제 표준을 지향하여 작업할 것을 제안함
 - 그는 성공적인 모델로 ITU와 ISO/IEC JTC 1이 공동 개발한 비디오 코딩에 대한 최신 표준(ITU-T H.265 또는 ISO/IEC 23008-2)을 꼽음

2

TIA, 스펙트럼 공유에 대한 백서: 정책 입안자를 위한 구체적 권고 발표

- 보도날짜 : 2013. 12. 10
- 출처 : TIA
- 사이트 : <http://www.tiaonline.org/news-media/press-releases/tia-announces-white-paper-spectrum-sharing-offers-specific-recommendations>

- TIA는 가능한 스펙트럼에 대한 국가의 증가된 수요를 충족시킬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서 “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” 발표
 - 백서는 스펙트럼 연구를 위한 R&D 편당의 현재 및 제안된 소스를 검토하고, 빠르게 발전한 스펙트럼 공유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R&D 영역을 식별함
- “무선 광대역 성장은 국가 최대 규모의 경제 원동력 중 하나이며, 스펙트럼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증가할 것. 따라서 혁신적인 스펙트럼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...스펙트럼 공유 기술은 전망이 밝으나 이러한 기술의 상당수를 주류에 편입시키는 데 막대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함. 연구 생태계 기반을 현대화하고 우선순위인 분야에 R&D를 집중함으로써, 의회와 행정부가 산업계와 공동으로 작업해야함”
- 백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의 업무를 가이드하기 위한 열한개의 권고를 포함하며 학계, 산업계 등의 스펙트럼 공유 R&D 활동의 청사진을 제시함
- 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은 12월 10-11일, 텍사스의 TIA의 CTO 위원회 라운드테이블과 함께 시작됨

▷ 참조 - 스펙트럼 공유 연구 및 개발 백서 전문 :

<https://www.tiaonline.org/sites/default/files/pages/SpectrumSharingR%26D%26aper%3D10-20-13.pdf>.

3

글로벌 헬스케어 이해관계자들, 표준 기반 통신 및 상호운용성 원한다

- 보도날짜 : 2013. 12. 10
- 출처 : IEEE-SA
- 사이트 : http://standards.ieee.org/news/2013/ieeesa_mhealth-summit.html

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한 해, 수십억 달러가 의료 기기 간 상호운용성 및 연결성의 간극으로 사라짐. 현재 글로벌 헬스케어 웹에서는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됨

■ 의료 기기와 기업의 의료 시스템 간에 건강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환자의 안전, 개인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절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
- 실제로 “치료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의료 상호운용성 추진”이 워싱턴에서 열린 mHealth 정상회담(12월 8-11일)의 아젠다였음

■ 올해 초 미 식품의약국(FDA)은 의료산업계를 위한 지침으로서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을 공인함. FDA가 받아들인 12개의 표준은 IEEE 11073™ 표준군에 속하며 의료제품 공급 업체와 벤더가 질병관리, 건강과 피트니스, 독립적 삶을 위한 상호운용가능한 장비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

FDA의 IEEE 11073 표준 승인에 대한 2013년 11월 12일자 보도 자료

■ IEEE-SA는 획기적인 분야인 “신체 영역 네트워킹” 뿐 아니라 의료기기 통신이 점점 더 의존하는 인터넷 미디어 액세스 장비 표준에서 국제 선두주자임
- 신체 영역 네트워킹 : IEEE 802.15.6™ “지역 및 도심지역 네트워크 표준 - 파트 15.6: 무선 신체 영역 네트워크”
- 인터넷 미디어 액세스 장비 표준 : IEEE 802.3™ “이더넷 표준”, IEEE 802.112; 시장에서 Wi-Fi®로 브랜드화되는 제품을 가능하게 함